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 지도1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7일(화) 13:30~15:0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정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오정숙, 이용훈, 임지훈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사업의 취지는 대학 교양 수준의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로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024년에는 총 1,139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9건은 필수서류 미제출(29건)과 중복신청(20건)의 사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1,188건이 심의대상이 되었다. 이 중 지도 1분과에서는 151건의 서류를 심사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업기획의 우수성(30점), 사업수행시설(인력)의 전문성(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10점), 사업운영시설의(강의실 등) 편의성(10점), 사업의 파급효과(30점) 및 가점(5점)(행정안전부지정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각자 온라인으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한 후 심의 당일 전체 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사전 심의에서 세 명의 심의위원이 가채점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 대체적으로 큰 이견 없이 최종 선정작을 결정했다.

올해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었다. 첫째로, 인문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강연 프로그램을 강사와 협의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같은 강사가 진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여러 도서관에 의해 신청된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 경우 위의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특히 신청기관이 지역특성과 지역민의 수요에 맞춰 해당 강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둘째로, 기존에 본 사업을 여러 번 진행했었던 여러 기관들의 제안서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뛰어나고 어느 정도 평준화된 수준을 담고 있었다. 셋째로, 신규로 진입한 기관이나 강연 프로그램들도 참신한 기획이 돋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들이 '길 위의 인문학'(일반) 사업 제안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개진되었다. 특정 인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인문심화 프로그램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앞으로도 참신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되기를 바란다. 본 사업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지도2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9일(목) 10:30~12:3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청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재현, 성해영, 황재문

지혜학교는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한 심화 인문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2회차 이상의 대학 교양 수준 인문학 강연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공모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서의 내용을 정독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심의는 심화 인문 프로그램으로서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기획의 우수성, 사업 수행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 운영시설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의 항목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의위원은 심의항목에 따라 각자 채점하고 그 결과를 합쳐 순위를 정한 뒤에 대면 회의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 과정인 '길 위의 인문학'과는 구별되는 '심화 인문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점검하여 순위를 검토하고, 강사 및 문화시설의 강의 수 등의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 사업의 기획 취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같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규 참여 단체 및 지방 문화시설에 대해 가점을 주었는데, 이는 인문 가치의 확산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 선정되지 못한 프로그램 가운데에도 우수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과 강사님들께는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좋은 강연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혜학교가 성공적인 인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 지중1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7일(화) 10:30~12:00
- 회의장소 : 예술위 충정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심진경, 임학순, 허연

2024년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지원심의 사업 지중1분과에서 검토한 지원신청서는 총 73종이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문화원, 서점, 뮤지엄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이 전문 강사와 함께 각 지역 문화와 역사 등에 기반한 인문학적 탐구를 체험할 수 있는 강의를 제안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혜학교는 대학 교양과목 수준의 깊이 있는 인문학적 고찰을 지향한다. 본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사업 취지에 따라 사업기획의 우수성(30%), 사업의 파급효과(30%), 사업수행시설(과 강사)의 전문성(20%),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절성(10%)과 사업시설의 편의성(10%)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은 사전에 미리 건네 받은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심의 및 채점을 진행했고 심의 당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38종을 선정했다.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강의 내용의 전문성과 구체성이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우, 주제의 수준이 높지 않고 너무 평이한 경우, 주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미 익숙한 상식 수준의 내용에 그치는 경우, 강의 내용이 너무 개괄적이거나 산만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에 낯익은 주제라고 해도 새로운 방법론이나 참신한 시각으로 접근한 경우, 지금까지 잘 다루지지 않았던 인문학적 주제를 다룬 경우, 지역 문화 탐방이나 실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짜여있어 그 내용이 잘 파악되는 경우, 고전 강독의 경우 지금 우리의 삶에 짙은 영감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보았다.

심의위원은 사전에 어떠한 교감 없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각자 점수를 주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 간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기획서의 우수성과 강의주제의 파급력 등으로 평가하는 심사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몇몇 다른 경우에도 큰 무리 없이 합의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세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매겨진 순서에 따라 지원 결과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인문학의 주제와 관심 분야가 폭넓고 그 내용 또한 전문적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시민들은 더 이상 개론 수준의 인문학이 아닌, 좀더 밀도 있고 통찰력 있는 인문학의 지혜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그룹 모두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대

중적 파급력까지 고려해 한 단계 더 높아진 인문학 강의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번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인문학 영역을 제안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방법론으로 주제에 접근한다거나 서로 다른 분야를 교차하는 융복합적 시도가 돋보이는 사례가 많았음을 알려둔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다듬어서 다음 기회에는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인문학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교양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2024 길위의인문학(지혜학교) 심의위원 일동